

중국추리소설을 통해 본 국내독자들의 중국현대소설 수용규범 - 『13.67』을 중심으로 -

최 은 정
(계명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3년간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에서 나타나는 장르문학의 약진에 주목하고, 특별히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수용규범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의 등가성,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된 동질성 내지 이질성, 이와 관련하여 내재된 어떤 인식이 작품 수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국추리소설이라는 매우 한정된 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독자들이 중국현대소설을 수용하는 방식의 보편성 내지 일반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추리소설의 약진이 내포하는 의미이다. 하나는 베스트셀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추리소설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중국어권 추리소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한 데에는 이야기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텍스트 본연의 내적인 요소가 외적인 개입보다 우선함을 증명한다. 다른 하나는 대중서사로서 장르문학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의 공통점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픈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부터 ‘추리’소설로서 ‘재미’와 ‘추리’소설’로서 ‘의미’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으며, 국내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공감을 표명한다. 이는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수용규범을 넘어서서, 문학이 보다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추리소설의 국내 수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 중국추리소설, 독자수용, 규범, 재미, 의미

1. 들어가면서

최근 3년간 중국현대소설¹⁾의 국내 수용을 관찰해보면, 장르문학의 약진²⁾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내에서 장르문학이 “1990년대를 규정하는 변별적 특징”³⁾으로 이미 주목을 받았던 것을 떠올려 보면,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에서 나타나는 장르문학이 약진 역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디지털 세대의 증가로 인해 독서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베스트셀러 유형 또한 대중성이 강한 분야의 도서에만 편중되고 있는 국내 출판시장의 동향”⁴⁾이 중국현대소설의 한국 내 수용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별히 최근 3년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하나는 국내에서 중국드라마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⁵⁾ 최근 3년간 중국소설분야 베스트셀러에

-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중국현대소설’은 통상 본격문학의 범주에서 논하는 ‘중국현대소설’뿐만 아니라 본격문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장르문학도 포함한다. 이때 장르문학은 “추리소설, 판타지, SF등과 같이 각각의 장르마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직관적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관습들과 규약들로 이루어진 서사양식”(박진, 「장르들과 접촉하는 문학의 스펙트럼」, 『창작과 비평』 36(2), 2008, 31쪽)을 말한다.
- 2) 최근 3년간 중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6월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변화가 보였다. 연간베스트셀러를 집계하고 있는 알라딘의 경우, 2015년 6월 추리소설인 『13.67』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2015년도 중국소설분야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2016-2018년도에는 각각 드라마 원작소설인 『량야방』, 『삼생삼세십리도화』, 『치아문단순적소미호』가 1위에 올랐다. 알라딘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스24의 월간 베스트셀러 흐름을 분석해보면, 당시 국내에서 인기를 끌던 중국드라마의 원작이 출간과 함께 순위에 진입하고 있고, 찬호계이의 신작 및 SF소설이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바, 2019년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볼 때, 10위권 안에 든 작품 중에서 7권이 장르문학이다. 2019년 1월 셋째 주 기준, 교보문고의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도 10위권 안에 든 소설 중에서 6권이 드라마소설, 추리소설, SF소설이었다.
- 3) 조성면, 「큰 이야기의 소멸과 장르문학의 폭발」, 『경계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장르문학과 문화비평』, 깊은 샘, 2009, 119쪽.
- 4) 김기태,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예창작』 14, 2015, 228-229쪽.
- 5) 2018년도 VOD 다운로드 순위 해외드라마 지상파 3사 OTT 서비스 ‘폭(POOQ) TV’ 집계에 따르면 해외시리즈 1위에서 5위를 중국드라마가 차지하였다. 「올해 가장 많이 본 예능은 ‘나 혼자 산다’, 드라마는 ‘뷰티 인사이드’, 아시아경제,

오른 작품들 모두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이 번역 출간된 것이다. 이는 중국드라마원작소설의 인기가 국내 중국드라마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비교적 우수한 장르문학이 생산되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13.67』에서 시작된 중국발 추리소설은 일본추리소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내 추리소설 시장에 신선함을 더해주고 있고, SF소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을 수상한 『삼체』(류츠진), 『고독 깊은 곳』(하오징팡)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중국 SF소설에 대한 시각을 바꿔나가고 있다.

본고는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특별히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독자서평분석을 통해 이들이 국내독자들과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⁶⁾ 이는 중국추리소설을 통해 나타나는 중국현대소설의 수용규범 내지 수용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원에 따르면, ‘규범’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 강제력을 가진 관습, 사회화를 통해 학습되는 대상, 옳고 그름을 구분하도록 해 주는 기준 등의 의미를 갖는다.⁷⁾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수용규범에는 우리 사회에서 문학 또는 문학 읽기라는 것에 대해 공유하는 어떤 기대나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텍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규범에 나타나는 공통성은 당대 사회문화적인 지형 안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에서 나타나는 독자들의 수용규범은 문학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공통적인 감성, 독서기준 내지 기대 지평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르문학의 특성상 장르문학 읽기 이면에는 특정한 장르의 장르적인 문법에 익숙한 독자들의 호불호가 자리한다는 점에서 중국장르문학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시선이 중국현대소설

2018.12.19. 참고.

- 6) 중국장르문학의 약진에는 중국드라마소설의 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드라마라는 매체를 경유하여 국내독자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이들의 수용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 7) 이상원,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6쪽.

을 보는 국내독자들의 시선이나 수용방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특정한 독자층이 존재하는 장르문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서평에서 읽어들 수 있는 수용규범이나 방식 또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서점에서 집계하는 베스트셀러가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국 현대소설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이 논문이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서 장르문학의 약진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국내독자들의 중국현대소설 수용방식의 특이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지만, 이것이 곧 중국현대소설을 읽는 국내독자들의 독법이나 독서지향을 일반적인 각도에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이 반영하는 독서심리나 수용규범 역시 국내 사회문화적인 지형의 일면만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책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며, 그러한 평판을 입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베스트셀러인지의 여부⁸⁾임을 떠올려보면, 베스트셀러를 통해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선호하는 작품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일면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 한편, 독자서평은 독자의 독서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읽어들 수 있는 방편으로 유용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독자서평은 정보의 교류는 물론 독자와 저자, 독자와 출판사, 독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⁹⁾ 때문에 인터넷 서점의 독자서평란은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과 독서 흐름을 파악하는 방편으로 매우 유효하다.¹⁰⁾ 특별히 번역서의 경우에는 독자서평이 평가의 기능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번역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점,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일반 독자들의 의견이 갈수록 증시되고 있다.¹¹⁾ 전현주는 “일반 독자들의 비평은 전문 비평가들의 비평 행위에 비하면 수적인 우세와 실시간 반응 등으로 무장하여 특히 온라인의 제

8) 박옥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2호, 2011, 4쪽.

9) 김인숙, 「인터넷 독자서평의 활용 실태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6쪽.

10) 김장근, 「인터넷 독자서평, 지식인의 문화적 독점 깬다」, 『출판저널』 310호, 2001, 29쪽.

11) 강지혜, 「번역수용자들은 번역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터넷공론장에서의 번역 논쟁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권 4호, 2013, 29쪽.

도적인 장치(주로 온라인 서점의 독자서평 등의 콘텐츠)를 통하여 엄청난 호소력과 대중성을 지닌 여론을 주도하는 막강한 집단으로 성장¹²⁾했다면 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독자서평이 독자들이 번역문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독자번역비평의 중심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음¹³⁾은 독자서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회상적 비평”¹⁴⁾에 근접하는 독자서평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의 장으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 있지만, 특정한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읽히고 있는지를 비교적 정직하게 보여주는 장으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13.67』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독자서평분석을 통해,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인식과 수용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13.67』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서평도 아울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독자들이 중국추리소설을 바라보는 시선에 내재된 공통적인 인식, 번역물 수용규범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자서평은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에 게시된 독자서평¹⁵⁾과 네이버의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되 인터넷 서점에 게시된 100자평은 제외하였다.

II. 국내독자들이 중국추리소설을 ‘읽는’ 법

최근 3년간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이 찬호계의 『13.67』이다. 이 작품이 눈에 띄는 이유는 홍콩작가의 작품이라는 것과 추리소설이라는 장르 때문이다. 홍콩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공간

-
- 12) 전현주,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권 1호, 2008, 223쪽.
 13) 한현희, 「러시아 문학 출판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노어노문학』 29권 2호, 2017, 206-207쪽.
 14) 회상적 비평이란 “대상작품의 특정한 내용에 대해 독자가 공감 혹은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민감하게 표현”하는 방식의 비평을 뜻한다. 전현주, 위의 글, 222쪽.
 15)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의 독자서평은 독자들이 서평을 읽고 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매체이다. 김인숙, 위의 글. 69-70쪽 참고.

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홍콩작가나 홍콩문학은 낯선 게 사실이다.¹⁶⁾ 게다가 국내 추리소설 분야에 처음 소개되는 중국어권 추리소설이다. “이제껏 국내에 번체나 간체로 쓰인 중국 미스터리는 소개된 적도 거의 없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아예 없었다”¹⁷⁾는 기사는 중국어권 추리소설이 국내에서 갖는 자리를 단적으로 설명한다. 출판사의 표현대로 “기라성 같은 역사를 쌓은 나라에서 나온 작품들을 읽기도 바쁜데 이 분야에서 ‘처음 보는 나라의 처음 보는 작가’를 선뜻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¹⁸⁾이라는 통념이 당연히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2015년 6월 출간되자마자 단숨에 중국소설 분야 베스트셀러¹⁹⁾에 올랐을 뿐더러, 여러 언론사들의 추천도서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²⁰⁾. 2015년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장르소설이 되었다”²¹⁾, 2015년 “장르소설계 최고의 화제작”²²⁾이라는 등의 평가나 찬호계의 등장을 2015년 국내 장르소설 분야의 특징 중 하나²³⁾로 꼽고 있는 기사들은 이 작품이 국내 장르소설 분야에 가

-
- 16) 송주란은 한국의 홍콩문화연구현황을 분석한 논문에서 ‘한국의 홍콩문학 연구 현황’ 또는 ‘한국의 홍콩문학 연구 특징’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에 번역 소개된 홍콩문학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주란, 『한국의 홍콩문화연구-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비교문화연구』 65집, 2018, 9쪽.) 실제로 이 책에 대한 독자서평을 보면 홍콩소설을 처음 접해본다는 내용이 많았다.
- 17) 『『기억나지 않음, 형사』와 중국어권 장르소설』, 채널에스, 2016.04.07.
- 18) 알라딘 도서 소개란에서 제공하는 ‘주간편집회의’(MD최원호) 참고.
- 19) 2015년 알라딘 집계 연간 베스트셀러 중국소설 분야 1위에 오른 뒤 2018년까지 5위권 안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예스24는 연간 베스트셀러 대신 1년 6개월 전에 출간된 작품에 대한 스테디셀러 목록을 제공하는데, 2019년 4월 기준 중국소설 분야 스테디셀러 5위에 올랐다. 교보문고는 연간 베스트셀러를 국외소설이라는 카테고리로 30위까지만 제공하는데, 2018년 기준 30위권에 들어와 있는 중국소설은 없었다.
- 20) 「다독가 5명 “내 여행 가방에 넣고 싶은 책은...”」, 한국일보, 2015.07.10; 「대목맞은 추리소설 골라볼까...노이하우스·미야베에 설록 홈즈 도전, 매경이코노미, 2015.07.20; 「한여름 밤을 위한 소설 베스트5, VOGUE」, 2017.07.27; 「무더위! 등골 서늘하다. 반전 쾌거~‘스릴러’로 맞서볼까」, 머니투데이, 2015.08.01; 「무더위 잇게 하는 미스터리...‘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외 3권」, 뉴시스, 2015.08.03; 「프레시안이 뽑은 ‘2015 올해의 책」, 프레시안, 2015.12.30.
- 21) 『『기억나지 않음, 형사』와 중국어권 장르소설』, 채널에스, 2016.04.07.
- 22)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 2016.03.10.
- 23) 「웹소설 쓰고 월 천만원 번다고? ‘오감만족’ 장르문학 무시 말자」, 머니투데이, 2015.12.11.

저은 신선함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시선들을 신간에 대한 언론매체의 ‘호들갑’ 또는 신빙성이 그다지 담보되지 않은 ‘제도’로서 베스트셀러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독자수용에서 나타나는 특이성 때문이다. 최근 중국드라마원작 소설의 인기에서도 나타나듯, 국내 베스트셀러의 요인으로 각종 미디어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하물며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번역소설일 경우 대중매체의 역할은 특히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독자서평이나 블로그를 보면, 『13.67』은 독자들의 ‘입소문’에 의거하여 그 수용진폭을 확장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즉, 번역소설이 국내에 수용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 작동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보편성 내지 통념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의미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어떤 점이 국내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독자서평에 나타난 독서 동기와 독후 감상을 분석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홍콩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며, 다른 하나는 ‘추리’소설로서 재미와 추리‘소설’로서 의미를 잘 구현해냈다는 것이다.

1. 홍콩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앞서 서술했듯, 국내독자들에게는 ‘홍콩’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진입장벽이 있다. 넓게는 중국어권이라는 생산지에 대한 의구심 내지 거부감이며 좁게는 홍콩문학에 대한 낯설음이다. 홍콩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낯설음은 작품에 대한 기대치와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기대나 설렘보다는 내용이 괜찮을지에 대한 불안 내지 불신이 더 많다. “중국미스터리 재미” (잉구리 2018-06-14, 알라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서평을 보면, 중국소설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선입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중국 특유의 과장됨, 국가 제일주의 뭐 그런 게 작품 속에 들어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권 문학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거부감 내지 질적인 의구심은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타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독자서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²⁴⁾ 그런데 이는 특별

24) 이와 관련된 독자서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물론 편견이겠지만) 중

히 중국어권 문학의 독서경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거가 모호하다. 중국어권 문학에 대한 편견을 표명하고 있는 독자서평 가운데 그러한 편견이 작동된 원인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일면이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투영되어 중국어권 문학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시에, 국내독자들에게 ‘홍콩’을 배경으로 한 ‘홍콩’ 작품이라는 점은 독서의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홍콩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홍콩은 심지어 특별한 ‘장소’로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작품은 홍콩이 한국인에게 내재하는 이러한 근원적인 감성을 잘 끌어내고 있다. 작품의 결텍스트는 이를 훌륭히 구현하는 바, 작품의 앞표지에 홍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층버스를 배치하고 있는데, 검은색과 하얀색의 대비를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살려낸다. 이는 홍콩 느와르 영화에 익숙한 세대에게 동질감을 부여하면서,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의 감수성을 깊이 자극한다. 뒷표지는 작품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데, “정교한 추리와 홍콩사회에 대한 치밀한 관찰”, “홍콩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닌 슬픔”이라는 표현 등으로 홍콩이라는 공간을 강조한다. 홍콩 느와르 영화를 통해 홍콩이라는 공간에 어떤 감정을 갖

국산 하면 왓치 짝퉁, 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솔직히 우려도 없지는 않았다. jedai2000 2015-06-09 ; 처음 신간으로 소개될 때만해도 솔직히 홍콩 사람이 쓴 추리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폄하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고 누군가가 엄청나다 대단하다는 말로 리뷰를 올렸어도 워낙 장르소설이란 게 취향을 많이 타는 분야라 그러려니 했었다. 몽뽀띠 2015-08-10(이상 알라딘, 『13.67』) ;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러한 책(공안권력과 경제사범의 비리와 범죄가 거리낌 없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jyhwater | 2018-11-05; 영화도 소설도 중국 감독이나 작가의 작품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읽었는데 이번 ‘동트기 힘든 긴 밤’ 작품 덕에 중국 소설에 대한 색안경을 벗게 된 거 같다. 우콩 | 2018-11-23(이상 예스24, 『동트기 힘든 긴 밤』) ; 중국 소설이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줄 몰랐다. 에셋해븐 | 2018-11-25 (예스24, 『심리죄』) ; 중화권의 문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삼국지>나 <영웅문> 정도의 소설밖에 읽어보지 않았습니니다. 약간 예스럽고 무협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세련미가 떨어지는 문화 낙후국으로 은연중에 여긴 모양입니다. <http://blog.naver.com/bookie9/220616312935>, 작성자명:bookie9 (『13.67』)

고 있는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산혁명’으로 홍콩 민주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젊은이들의 지적인 욕구에도 다가갈 수 있다. 단순히 추리소설 뿐만 아니라, 홍콩이라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 ① 한국에 아마 처음 소개되는 홍콩 미스터리라는 사실만으로도 흥미가 동했던 책. 1967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홍콩의 역사를 관통하는 경찰 소설이라니, 절로 두기봉 감독의 <PTU2003>나 <대사건大事件, 2004>, <신탐神探, 2007>과 같은 영화에서 접했던 홍콩 경찰들의 제복과 영어 표현 등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oldies, 2015-07-09
- ② 그 시절 홍콩 느와르에 대한 향수. 70년대에 태어나 80,9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나에게 그 시절 홍콩 느와르 영화는 하나의 문화이자 향수였다. (중략) 찬호계의 “13.67”은 마치 그 시절의 홍콩영화를 보는 듯 박진감 넘치고, 스틸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패스파인더, 2018-01-24
- ③ 일본의 다른 추리 소설과 색다른 느낌이었고 어릴 때 보았던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LetterFromEarth 2016-04-09 (이상 알라딘)
- ④ 홍콩, 중국 영화(어두운 뒷골목 이야기?)의 범죄 영화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떠올리는 느와르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추억까지 함께 전달해 줄 책 ma**clamp7 | 2018-12-26
- ⑤ 어릴 적 봤던 홍콩 영화, 폴리스 스토리, 폴리스 아카데미 시리즈가 자꾸만 떠오르고 찬호계의 <13.67>을 읽고 나니 홍콩의 근현대사가 궁금해졌다. kk**dol8 | 2018-04-06
- ⑥ 홍콩 느와르 영화를 글로 읽는 기분. 전설이 될 한 권의 추리소설. 읽고 나면 홍콩이 가고 싶어지는 기묘한 추리소설. bw**08 2016-02-04 (이상 교보문고)
- ⑦ 홍콩에서 날아온 찬호계의 소설은 웬지 반가웠다. 그 반가움은 작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작가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도 홍콩이라는 도시가 내게 준 느낌들 때문일 것이다. 80년대 주윤발의 영화가 준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다. cyann1 | 2016-10-12 (예스24)

서평에서 나타나듯, 홍콩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특별한’ 감성은 이 작품을 읽는 기본적인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13.67』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독서동기와 비교해볼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추리소설 중에서 『13.67』은 일본에서도 번역되었는데, 중국어권 미스터리계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²⁵⁾ 그런데, 일본 독자들의 독서동기에는 홍콩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존의 독자서평(46건)에 나타난 일본 독자들의 독서동기를 분석해보면, 작품 자체에 대한 공적인 평판이 압도적인 독서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작품 생산지의 낯설음 또는 친숙함이 지닌 편견과 이로 인한 인식 변화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²⁶⁾ 우리나라 독자들이 책에 대한 평판도와는 별개로 ‘홍콩’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독서를 망설였다거나 ‘홍콩’이 배경이어서 읽게 되었다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국내 독자들이 낯선 나라의 낯선 작품을 수용할 때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식이 독서동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 서사적인 완성도

국내 독자들이 중국어권 문학에 대해 표명하는 의구심 내지 거부감은 추리소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독해 후 국내독자들은 하나같이 텍스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서술한다.²⁷⁾ 그렇다면

25) 2017년 “주간문춘(週刊文春)미스터리 베스트 10”과 “본격미스터리베스트10” 해외 부문 1위에 올랐다. 독자서평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아마존의 독자리뷰(46건), BookLive(30건 https://booklive.jp/review/list/title_id/470022/vol_no/001), 야후재팬에서 서평 또는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언론리뷰 포함) 30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였다.

26) 아마존 서평 46건 중 1건의 서평에서 중국어권 미스터리라는 이유로 독서를 주저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다. 개인적인 홍콩여행 경험에 대해 언급한 서평에서도 이것을 독서 동기와 연관 지어 서술하지는 않았다.

27) 이와 관련된 서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중국 작가의 추리소설도 일본 작가의 추리소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라떼 2015-06-09) ; 읽기 전에는 홍콩 출신 작가의 작품이라 반신반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올해의 베스트10’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작품이라는 확신(하나비 2015-06-22, 이상

어떤 면이 독자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이 작가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까. 다음 독자서평을 보자.

- ① 기승전결이 탄탄해 완성도가 높고(중략) 구성 또한 특이하다. 작가는 홍콩의 역사를 이야기의 배경과 디테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런 면에서 『13.67』은 사회파 추리소설의 면모를 띤다. 양 손잡이 2017-09-21
- ② 여섯 작품 모두는 놀랄 만큼 밀도 있고 공정한 본격 미스터리로 수렴한다. (중략)경제지대에 놓인 홍콩이라는 세계/경찰이라는 세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라는 주제도 놓치지 않는다. oldies 2015-07-09
- ③ 경찰 소설로도 손색이 없고 트릭과 반전의 묘미를 살린 본격 추리소설로도 뛰어나다. 한편으론 급변하는 홍콩 사회와 더불어 변화가는 한 경찰관의 일생을 그린 사회파 추리소설이기도 하다. (중략) 이 책의 미덕은 이야기의 촘촘함 바로 밀도이다. 나텐 2015-06-09
- ④ 오랜만에 제대로 된 추리소설 읽은 기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교한 짜임새가 가장 큰 매력인 듯. 흥냥 2016-03-15
- ⑤ 전체적으로 ‘사회파 추리소설’의 분위기인데. 꽤나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이어진 6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홍콩사회와 맞물린 쫓겨난 플롯,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단편소설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점...충분히 매력 있는 소설이다. 머털이 2015-08-22
- ⑥ 사회파 미스터리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의 많은 수는 미스터리 위에 사회 묘사가 너무 큰 볼륨으로 덮여있어 추리 소설로서의 정체성을 들춰보기가 힘들었는데 이 소설은 두 가지를 잘 모아 그려주고 있다.

알라딘) ; 사실 처음 읽기 전에는 처음 접해보는 홍콩 작가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건방진 예단이 보기 좋게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icensky | 2016-04-14 ; 내심 중화권 범죄소설은 어떻게 걱정했는데, 이 책을 읽고 무간도나 영웅본색 등의 수많은 홍콩 범죄영화가 떠오르면서 아.. 그냥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편견을 가졌던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 wlskfk | 2015-09-03; 처음엔 이 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커피 좋아 | 2015-06-08 (이상 에스 24)”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서평에서 중국추리소설, 나아가 중국문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소dana 2018-05-23

- ⑦ 본격추리로서도 성취가 뛰어나고, 홍콩의 변화상과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사실성으로 사회파의 장점도 아울러 취하고 있다. jedai2000 2015-06-09
- ⑧ 전체적인 구성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작품이었는데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절묘한 반전에 홍콩 역사와 사회문제까지 한 권으로 녹여낸 멋진 작품이었다. sunny 2015-08-16
- ⑨ 꽤나 목직한 이야기들입니다. (중략) 단순한 추리스릴러소설로서 읽고 단숨에 잊어버리는 느낌이 아닌 오래 읽은 만큼 그 잔상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전 무척 만족스럽네요, 그리움마다 2015-06-30
- ⑩ 반전만을 위한 가벼운 소설이 아닌 목직한 깊이 있는 책 한권을 읽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ksr1992 2016-06-15 (이상 알라딘)
- ⑪ 그 ‘목직한 개운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어요. 그간 한국 소설에서 아쉬웠던 빈약한 서사력, 일본 미스터리 소설에서 아쉬웠던 사회와 시대에 대한 통찰 등을 이 소설은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ca1008/221196888740> 작성자: 미도리샤워
- ⑫ 좋은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장르소설이지만 범죄추리해결의 쾌감 외에 여러 가치를 떠오르게 한다. <http://blog.naver.com/whbear76/221123086728> 작성자 : whbear76

인용한 독자서평을 보면, ‘정교함’, ‘밀도’, ‘유기적’, ‘쫄쫄함’, ‘잘 짜여짐’ 등과 같은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추리)소설로서 갖추어야 하는 서사적인 강점이 독자들에게 강한 흡인력과 재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리’소설로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트릭의 완성도 및 그것이 제공하는 재미와 추리‘소설’로서 이야기의 깊이, 즉 생각거리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새로이 알게 된 ‘홍콩’이 국내독자들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하면서, 이 작품이 재미있으면서도 목직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홍콩의 어제와 오늘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단순히 ‘추리’소설만이 아닌 역사소설 또는 다큐멘터리 식 사회파 소설이라는 가치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파추리소설이자 본격추리소설로서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생각거리가 도착어권의 사회현실과 맞닿은 부분

이 있다는 점이다. 관전뒤라는 형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홍콩의 아픔을 통해 국내독자들은 우리 사회를 반추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경찰이라는 주인공의 직업이다. 사립탐정이나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경찰이라는 주인공은 공적인 장에서의 문제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상징하는 공권력, 그 정의의 문제이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 화두는 지난 3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자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전뒤라는 한 평범한 경찰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경찰이 상징하는 공권력이란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한국 사회와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내가 처한 사회와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요즘 사건 사고를 다룬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싶을 만큼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그 판결에 분노하며 자국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관전뒤의 말이 더 큰 울림이 된다.
<https://blog.naver.com/shine4son/221263672034> 작성자 : 낭만시대
- ② 이 책에 더 빠져들게 된 것은 홍콩이라는 배경 때문이다. (중략)지금도 아련한 그 스타들의 이름들을 몇 정도는 떠올리며 흐뭇해지는 어른들이 느끼는 홍콩의 친숙함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특히 아시아 나라에서 심한 공무원-경찰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flysophia/221012118665> 작성자 : flysophia
- ③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엉망이다. (중략)소설에서나마 이런 멋진 경찰이 있음을 대리 만족해야 하나?
 머큐리 2016-01-18
- ④ 작가는 온갖 비리와 음모와 폭력들이 난무하던 홍콩의 과거를 상당히 냉철하고 솔직한 문체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들이 나이를 먹고 우리가 제법 커버린 지금의 내가 느끼기에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때의 홍콩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동전사 2015-11-09
- ⑤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할 원칙은 그 조직과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공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두려움을 깨닫기를 바래본다. 무해한 모리군 2015-08-05

- ⑥ 현재가 과거에 지나는 의미에 대해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에 어떤 의미인가(중략)인간관계가 가진 삶의 아이러니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여운까지 던진다. 살인교수, 2015-08-07 (이상 알라딘)

이상에서 볼 때, 『13.67』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중국어권 추리소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서사적인 완성도에 있다. 다시 말해, ‘추리’소설로서 재미와 추리‘소설’로서 의미를 잘 구현해냄으로써, 국내독자들이 중국어권 문학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좋은 주제와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²⁸⁾이야말로 문학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새삼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맞물려 얼마나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지의 여부가 텍스트의 깊이 내지 무게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은 국내 독자들이 텍스트를 평가할 때 개연성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추리‘소설’로서 ‘의미’에 대한 요청

단순히 재미만이 아닌,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선호는 여타 중국추리소설의 국내 수용양상에서도 나타난다. 『13.67』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추리소설이 연달아 번역 출간되었는데, 국내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작품들은 『13.67』처럼 사회파 추리소설로 우리 사회 현실과 밀착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망내인』이나 『동트기 힘든 긴 밤』(쑤진천)이 그 좋은 예이다. 『13.67』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찬호계이의 다른 작품들도 연달아 번역 소개되어 총5종의 작품이 출간되었는데, 『망내인』은 찬호계이의 작품들 중에서 『13.67』 다음으로 국내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2017년 12월에 출간된 이 작품이 독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을 넘어서는 공감도에 있다. 그리고 그 공감도는 지

28) 김성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작가세계』 28호, 2016, 95쪽.

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사회에 대한 시선의 공감도이다. “‘홍콩’의 현재를 그렸다”고 하지만 “‘홍콩’의 모습만은 아닌 듯”,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2018년 대한민국 현실과도 다르지 않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어두운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홍콩이 나 대한민국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자신이 느끼는 혐오와 차별, 질투와 시기, 우울과 분노 등을 쏟아 붓고 있다”는 등의 서평²⁹⁾이 이를 설명한다. “생명과 존엄, 정의가 짓밟힐 때 작고 초라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결텍스트가 인상적인 『동트기 힘든 긴 밤』은 권력에 맞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음에 많은 여운과 생각이 남는 책”, “묵직한 울림이 있었던 사회파 소설”등, 이 작품에 대한 독자서평³⁰⁾에는 답답함, 안타까움, 씁쓸함, 먹먹함, 눈물 등의 어휘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어휘들은 독서활동 가운데 감정이입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 작품에서 투영하는 바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맞닿은 지점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 ①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까지 연결되어 오게 된 과정과 거대 권력과 겹은 세계를 대상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어려움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임을 보면서 씁쓸함마저 들었다. 한 스폰의 시간 2018-12-03
- ② 소설속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소설의 일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너무나 무섭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이 일들은 진행 중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아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없어져야 할 이야기. 아재 2018-12-02 (이상 알라딘)
- ③ 권력을 가진 지위층들의 비리와 부패를 하루 이를 보고 들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빈번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파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네와 너무나도

29) 알라딘에 게시된 서평에서 발췌한 것으로, 작성자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김권호 2018-01-03; 키치 2018-02-01.

30) 예스24에 게시된 서평에서 발췌한 것으로, 작성자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J | 2018-11-02; kindlyhj | 2018-10-31.

같은 현실에 참담하고 당혹스러웠다면 비단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묘한 동질감까지 느끼게 된다. 난난 | 2018-10-26

- ④ 그가 밟아 온 과정을 보면 한 번도 시원히 해결은커녕 계속되는 반대와 역경을 보면서 그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했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그의 심정이 동감도 되면서 그의 좌절에 답답하게도 느껴지는 것이 그가 일련의 과정에서 공권력의 높은 벽을 느끼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중략)어느새 경제적이든 권력이든 힘에 의한 부조리한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 책이었고 묵직한 울림을 준 책이었다. 몽쁘띠 | 2018-10-28
- 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일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려냈고, 하지만 비판과 논리에 더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정선까지 살려 무척 감동적이고 아프게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분홍쟁이 | 2018-11-30
- ⑥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실정이거나 쓸쓸한 기분도 들었다.(중략) 결국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를 건 없었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윗선들,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할수록 더더욱 구렁텅이에 빠져 버리는 힘없는 일개 국민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슬펐다. 곰순이 | 2018-11-26 (이상 예스24)

흥미로운 것은 『13.67』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공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인물들 - 검찰관, 변호사, 법의관 등 -을 내세워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노력은 상식적으로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정의가 방해받고 있는 지점에 권력이 있고 그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있음을 노출한다. 이 작품이 던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공정하지 못한 문제와 그 앞에서 침묵하는 다수 중 하나일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이다. 추리‘소설’로서 이 작품이 국내독자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나 자신은 이러한 힘에 과연 맞설 수 있을까. 굴복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자문”하고, “동트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알아보아야 할지” 고민하며, “타인에게 각박해지기만 하는

요즘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힘이다.³¹⁾ 독자들의 이러한 자기성찰은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에 기대하는 것을 이 작품이 온전히 구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국내독자들이 추구하는 추리‘소설’로서 의미는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독자들이 중국추리소설을 수용하고 평가할 때, 작품에서 투영하는 문제에 대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중시하고, 이것을 찾고 있음을 설명한다.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작품의 등가성 여부가 작품수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실과의 등가성은 이들 중국추리소설이 이른바 행복한 끝내기나 권선징악, 상투성 같은 장르문학의 보편적인 특질³²⁾에서 비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로부터 이들 작품은 장르문학에 대한 일종의 편견³³⁾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자면, 『13.67』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발 추리소설은 문학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중간소설’³⁴⁾로서 국내독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독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수용특징은 동일 작품에 대한 일본 독자들의 반응과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국내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독자들 역시 본격추리소설이자 사회파추리소설로서 작품의 완성도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어떤 공감이나 동질감을 경험했다는 서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독자들이 작품에서 투영하고 있는 여러 현실을 나와 내가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연결 지어 성찰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국내독자들은 작품에서 반영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면서

31) 예스24에 게시된 서평에서 발췌한 것으로, 작성자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ikkeo | 2018-11-30, 분홍쟁이 | 2018-11-30, 땡소 | 2018-11-02.

32) 조성면은 장르문학을 곧 대중문학이라고 정의하면서, “편한 플롯, 값싼 감상주의, 통속성, 영웅주의, 도피주의, 상투성, 행복한 끝내기, 권선징악, 대중추수성” 등을 대중문학의 보편적인 특질로 꼽았다. 조성면, 위의 책, 109쪽.

33) 장르문학과 본격문학의 구분 자체가 자의적이고 갈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장르문학은 본격문학과의 “관례적 제도적인 경계와 직관적인 구분법을 존중”(박진, 위의 글, 31쪽)함을 전제한다. 따라서 “장르문학에 대한 일종의 편견”은 본격문학과 장르문학을 구분하고 위계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팔려 나오는 편견을 뜻한다.

34) 김장근, 「서서히 기지개 켜는 추리소설 시장」, 『출판저널』 313호, 2001, 23쪽.

작품의 목적함을 경험하고 작품 속 현실에 공감하거나 주인공에 주목하여 경찰로서 그의 행위와 신념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나와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반면, 일본 독자들의 서평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다.³⁵⁾ 아마존의 독자서평 중 “일본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정의의 흔들림”³⁶⁾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로 유추해보건대, 국내독자들이 작품 속 ‘정의’의 문제를 홍콩만이 아닌 우리의 문제, 나아가 인류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독자들은 이를 ‘홍콩’이라는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일본 독자들의 서평에는 추리소설로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개인적인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 짝막한 독서 동기와 장르적인 특징에 입각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룬다. 특이한 것은 본격미스터리로서 트릭의 완벽함이나 개개의 작품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묶어주는 유기성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명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³⁷⁾ 이는 국내독자들의 서평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13.67』을 포함한 중국추리소설의 국내 독자서평에서는 ‘번역’소설이기 때문에 내포할 수 있는 독해의 어려움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에 대해 독자들이 경험하는 독해의 난항은 배경지식의 부족이나 인명, 지명 같은 고유명사의 낯설음에서 기인한다.

35) 필자가 검토한 서평 중에서 아래 서평이 ‘정의’라는 명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중국어권 작품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읽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그 ‘정의’를 독자 자신의 현실과 연관 지어 서술하지는 않았다.(https://booklive.jp/review/list/title_id/470022/vol_no/001 Posted by ブクログ 2019年04月26日) 참고.

36) Ultimate-ez, 類似作品の見つからない圧倒的なオリジナリティ, 2018年4月13日.

37) 이와 관련된 서평으로 ①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특별한 장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통 순서가 훨씬 읽기 쉽다. 이것으로 HK의 역사를 알고 싶은 분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テレビドラマのようです2019年4月24日 ② 본격미스터리 팬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つ星のうち4.0 異色の香港ミステリ! 2018年1月1日 ③ 본격미스터리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사회파 미스터리로서는 읽을 만한 부분이 있다. 類似作品の見つからない圧倒的なオリジナリティ 2018年4月13日 (이상 일본아마존) ④ 일본의 본격미스터리를 읽는 독자들이라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트릭이 많다.(http://saiten.dip.jp/mystery/content/book_select/11434)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독자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독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 독서를 망설이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독서에 큰 어려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이야기의 힘이다. “어렵고 낯설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력이 강하고 스토리의 진행이 빨라(중략) 거뜬히 읽어버리게 됐다”, “진입장벽이 약간 있었는데 읽다보니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신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는데도 순식간에 빠져들었다”는 등의 서평³⁸⁾은 작품 자체의 이야기가 지니는 힘이 번역소설 독해의 큰 난점인 문화적인 이질성도 상쇄함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가독성이다. 번역물에 대한 독자서평에서 번역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독자서평을 텍스트로 한 독자번역평가가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들 작품에서는 특별히 번역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이들 작품이 독자입장에서 번역이 잘 된, 가독성이 우수한 작품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국내독자들의 중국추리소설 수용에서는 현실과의 등가성,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된 동질성 내지 이질성, 이와 관련하여 내재된 어떤 인식이 작품 수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중국추리소설이라는 매우 한정된 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독자들이 중국현대소설이라는 특정한 번역물을 수용하는 방식의 보편성 내지 일반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독서에 있어서 ‘의미’를 중시하는 국내독자들의 욕망일 것이다.

IV. 나가면서

이상,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수용규범을 일면이나마 살펴보았다.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독자서평분석으로 볼 때, 국내독자들이 낯선 나라의 낯선

38) 예스24의 『13.67』에 대한 독자서평에서 발췌한 것으로, 작성자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우콩 | 2018-11-23, 낭스 | 2017-12-30, 튜브 | 2016-05-11.

작품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실과의 등가성,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동질성 내지 이질성, 이와 관련하여 내재된 어떤 인식이다. 한편, 국내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의 공통점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그 시대와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성 내지 어떤 아픈 지점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국내독자들은 ‘추리’소설로서 재미와 추리‘소설’로서 의미를 잘 구현하고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맞물려 얼마나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지의 여부에 있고, 이것이 텍스트의 깊이 내지 무게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국추리소설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독자들의 이러한 수용규범은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증명한다. 중국현대소설이 많이 소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중국현대소설의 입지는 아직 좁다. 국내에 중국현대문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기에,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국추리소설은 이야기의 힘으로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힘이란 재미와 의미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 독자들에게 소리 없이 스며들어 온 중국발 추리소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독자들이 독서를 통해 기대하는 지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담는 그릇의 문제이다. 기실 국내독자들이 중국추리소설을 독해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명제들 - 정의, 권력, 책임, 의무, 관계,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은 문학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자면, 중국추리소설에 대한 국내독자들의 수용 이면에는 이러한 명제들이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생산된 작품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놀라움, ‘추리’소설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한 신선함 등이 담겨있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본격)문학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역사추리소설, 판타지, SF, 그래픽노블 같은 새로운 기법의 차용 및 현대의 관심사와 그것을 반영하는 문예사조들의 파악과 연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³⁹⁾ 이는 주제와 내용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담아내는 방식에 대한 사유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발

추리소설의 국내수용에서 읽혀지는 독자들의 수용규범은 이러한 필요성을 새삼 인지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현대소설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수용규범을 넘어서서, 오늘날 문학이 수용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인지를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중국현대소설의 국내수용에서 나타나는 장르문학(추리소설)의 약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39) 김성곤, 위의 글, 89-90쪽.

■ 참고문헌

- 강지혜, 「번역수용자들은 번역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터넷공론장에
서의 번역 논쟁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권 4호, 2013.
- 김기태,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 『한국문예창작』
14, 2015.
- 김성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작가세계』 28호, 2016.
- 김이금, 『1990년대 번역소설 베스트셀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
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인숙, 『인터넷 독자서평의 활용 실태 분석』,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장근, 「인터넷 독자서평, 지식인의 문화적 독점 깬다」, 『출판저널』 310호,
2001.
- _____, 「서서히 기지개 켜는 추리소설 시장」, 『출판저널』 313호, 2001.
- 박옥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
구』 제22권 2호, 2011.
- 박진, 「장르들과 접속하는 문학의 스펙트럼」, 『창작과 비평』 36(2), 2008.
- 송주란, 「한국의 홍콩문학연구-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비교문화연구』
65집, 2018.
- 이상원,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전현주,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권 1호, 2008.
- 조성면, 『경계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장르문학과 문화비평』, 깊은 샘, 2009.
- 한현희, 「러시아 문학 출판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노어
노문학』 29권 2호, 2017.
- 다독가 5명 “내 여행 가방에 넣고 싶은 책은…”, 한국일보, 2015.07.10.
- 대목 맞은 추리소설 골라볼까…노이하우스·미야베에 설록 홈즈 도전, 매
경이코노미, 2015.07.20.
- 무더위! 등골 서늘하다. 반전 쾌거~‘스릴러’로 맞서볼까, 머니투데이,

2015.08.01.

무더위 잊게 하는 미스터리...‘십자가와 반지의 초상’ 외 3권, 뉴시스,

2015.08.03.

웹소설 쓰고 월 천만원 번다고? ‘오감만족’ 장르문학 무시 말자, 머니투데이,

2015.12.11.

프레스이안이 뽑은 ‘2015 올해의 책’, 프레스이안, 2015.12.30.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 2016.03.10.

『기억나지 않음, 형사』와 중국어권 장르소설, 채널예스, 2016.04.07.

‘촌스럽다’는 옛말, 중드의 세련된 반격이 시작됐다”, 오마이뉴스, 2016.04.12.

중국 드라마 부흥을 선언한 <랑야방>, 경향신문, 2016.05.10.

‘랑야방을 아시나요?’...‘중드’에 열광하는 한국 시청자들, 조선비즈, 2016.08.03.

웹메이드 콘텐츠 국내 진격... 한중 양방향 교류로 진화, 한국일보, 2016.11.15

웹소설이 떴다, 장르 소설이 새로운 길?, 프레스이안, 2017.02.24.

한여름 밤을 위한 소설 베스트5, VOGUE, 2017.07.27.

올해 가장 많이 본 예능은 ‘나 혼자 산다’, 드라마는 ‘뷰티 인사이드’, 아시아경제, 2018.12.19.

https://booklive.jp/review/list/title_id/470022/vol_no/001 (검색일: 2019.04.30.)

https://www.amazon.co.jp/%EF%BC%91%EF%BC%93%E3%83%BB%EF%BC%96%EF%BC%97-%E9%99%B3-%E6%B5%A9%E5%9F%BA/dp/4163907157/ref=sr_1_1?__mk_ja_JP=%E3%82%AB%E3%82%BF%E3%82%AB%E3%83%8A&keywords=13.67&qid=1559807644&s=gateway&sr=8-1 (검색일: 2019.04.30.)

❖ ABSTRACT

The Norms of the Reader Acceptance Shown in
Chinese Mystery Novels
- Focusing on 『13.67』 -

Choi, Eun-jeong

This manuscript notes quick developments of literary genres shown in modern Chinese novels' national acceptance in the last three years, and examines national readers' acceptance norms on modern Chinese novels through Chinese mystery novels, receiving good responses throughout the nation. Common grounds of Chinese mystery novels receiving good responses from readers, are that such novels are fun to read as 'mystery' novels, and meaningful as mystery 'novels' which have resulted in the success of these novels. If there is only a fun element, novels don't endure. If the meaning is excessively emphasized, it is difficult to attain popularity. Chinese mystery novels quietly gaining popularity throughout the nation, prove that these two key factors are what readers anticipate experiencing through reading such novels. Because this is about finite objects within Chinese mystery novels, national readers can't explain the universal appeal of modern Chinese novels. However, readers' responses on Chinese mystery novels imply that literary genre reading doesn't seek fun as well as the meaning of such literature. This also explains why the two key factors in such literature, can be more widely embraced, beyond national readers' acceptance norms on modern Chinese novels. That's why the two key factors noted, relative to national acceptance of such novels, should be noted.

Key Words : Chinese mystery novel, reader acceptance, norm, fun, meaning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

